

왕실 언간의 물명과 단위명사 연구

조정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국어학 전공

jja@aks.ac.kr

I. 머리말

II. 대상 자료의 성격과 범위

III. 왕실 언간의 물명 분류

IV. 왕실 언간의 단위명사

V. 맷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조선시대 왕실 언간 자료에 나타난 물명(物名)과 단위명사를 의미 부류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여기서 왕실 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간의 발수신자를 고려한 구분으로 사대부 언간에 대별되는 것이다. 즉, 왕실 언간은 발신자나 수신자 중 어느 한쪽이 왕이나 왕비, 공주, 상궁 등 왕실의 구성원인 언간을 말한다.¹⁾ 이런 언간 자료에는 다양한 물명이 나타나는데, 언간의 물명은 발수신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실제 사용되었던 생생한 이름이라는 특성이 있다. 또 물명과 함께 나타나는 단위명사는 물명의 의미를 분류하고 한정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물명과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왕실 언간에 어떤 물명과 단위명사가 쓰이는지 살펴보면, 왕실 구성원들이 주고받은 언간에 나타난 물명과 단위명사가 일반 사대부 언간의 물명 및 단위명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 국어학적 측면에서 왕실 언간의 표기나 음운, 문법, 어휘 등을 고찰한 연구는 있었지만, 물명이나 단위명사에 초점을 두고 실제 왕실 언간에 나타난 물명이나 단위명사를 추출하고 분류하여 특성을 밝힌 연구는 없었다. 또 왕실 언간에 기록된 물명은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의궤나 발기 등 왕실 관련 문헌에 기록된 물명과도 차이가 있을

1) 이종덕(2005:1)에서는 왕이나 왕비, 대비, 공주 등 왕실에 속하는 인물이 쓴 언간을 ‘왕실 언간’이라는 용어로 지칭하였다. ‘궁중 언간’이라는 표현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는 언간의 작성과 유통 공간이 궁중으로 한정되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왕실 언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왕실 언간’이라는 용어를 왕실에 속하는 인물이 쓴 언간으로 한정했을 때 상궁이나 궁녀가 쓴 언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종덕(2005)은 17세기 왕실 언간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상궁이나 궁녀의 언간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궁이나 궁녀의 편지가 남아 있는 19세기 언간까지 포함한다면 과연 이들이 쓴 편지를 왕실 언간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전하는 조선시대 궁녀의 편지를 살펴보면, 단순한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그들이 모시는 왕비나 대비의 편지를 대필하거나 꼭 대필이 아니어도 왕비나 대비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성격의 편지가 많으며, 편지의 수신자 역시 왕비나 대비의 집안과 관련된 인물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언간의 발수신자로서의 상궁이나 궁녀가 왕실의 구성원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신분적으로 왕족인가 아닌가로 판단할 단순한 사항은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상궁이나 궁녀도 내명부(內命婦)의 일원이자 왕실의 구성원이므로 그들이 쓴 언간도 여기서는 왕실 언간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金一根(1986/1999:78-80)에서도 직접적으로 왕실 언간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朝鮮末期 王室 謄簡이라는 소분류 아래에 ‘혜경궁 홍씨나 정조, 순조와 명온공주, 순원왕후의 편지와 함께 내인(內人)의 편지도 포함하고 있다.

수 있다.²⁾ 이는 왕실 인간에 나타난 물명이 단순히 공식적인 기록을 위한 물명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실제 사용하던 물명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현재 전하는 왕실 인간 자료의 성격과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물명과 단위명사를 추출하여 의미 부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왕실 인간에 나타난 물명과 단위명사의 경향성을 통해 특징을 파악해보려고 한다.

II. 대상 자료의 성격과 범위

이 글은 왕실 인간의 서지나 표기, 음운, 문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은 아니다. 왕실 인간에 나타난 물명과 단위명사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 나타난 물명은 의궤나 발기, 유서(類書) 등에 나타난 물명과는 각각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³⁾ 인간의 물명은 단순한 낱낱의 명칭, 별개의 명칭이 아니라 해당 인간의 내용이나 인간의 발수신관계, 발수신자의 신분,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성격, 편지를 쓴 목적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왕실 인간의 물명은 왕실 구성원이 발수신자이고, 궁(宮)이라는 공간에서 외부로 전해진 인간의 물명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을 것이다.

언간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연구는 김일근(1959, 1974, 1986 · 1999)에 의해서 이루어졌다.⁴⁾ 이후 각 인간별로 여러 연구서나 역주서가 출간되었고⁵⁾, 특히 황문환 · 임치균 · 전경복 · 조정아 · 황은영(2013)에

2)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는 임금이 왕족이나 신하에게 내리는 다양한 종류의 하사품(下賜品)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한 문자 자체가 한자나 이두이기 때문에 인간의 물명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 심경호(2012:7)에 따르면, 국왕이 선물을 내리는 것을 한자로 내사(內賜)나 하사(下賜) 혹은 은급(恩給)이라 했고, 한글로는 '물어주다'라고 했다. 국왕과 선물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총괄하는 저술이다.

3) 인간에 나타난 물명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정아(2014:139)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4) 이종덕, 『17세기 왕실 인간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2쪽.

서는 지금까지의 인간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고, 판독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필사본인 인간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하였다.

인간에 대한 일련의 연구 중 왕실 인간에 주목한 것은 이종덕(2005)이 대표적인데, 17세기 왕실 인간 144건을 대상으로 하여 서지와 판독은 물론 표기, 음운, 문법, 어휘 등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후 왕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어학 분야에서 별로 진행되지 못한 듯하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자료의 희귀성 때문일 것이다. 왕이나 왕후의 친필 문서에 대한 금기나 한글로 쓴 사적인 내용의 편지라는 점 때문에 후대에 전하는 자료 자체가 매우 귀하다.⁶⁾ 그래서 사대부 인간과는 달리 기준에 알려진 자료 외에 새롭게 발굴되어 소개된 자료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립한글박물관을 비롯한 몇몇 기관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전해오던 왕실 인간을 구입하여 새롭게 소개하고 있어 좀 더 폭넓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 5) 각 언간별 참고문헌은 황문환·임치균·전경목·조정아·황은영(2013)의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1~3권에서 정리하였다. 주요한 연구업적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용선(1997)은 덕온공주의 손녀인 윤백영 여사가 소장하고 있던 순원왕후, 철인왕후, 상궁의 인간을 영인하고 역주하여 소개하였다. 이승희(2010)에서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순원왕후어필〉과 〈순원왕후어필봉서〉를 판독문과 현대어역뿐 아니라 국어학적 주석까지 덧붙였다. 이 편지들은 순원왕후의 재종동생인 김홍근과 조카들에게 보낸 편지로 일상의 안부를 전하기 위한 안부 편지라기보다는 수렴청정과 세도정치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기대(2007)는 현재 전하는 왕실 인간 중 가장 건수가 많은 명성황후 인간을 영인하고 판독, 해설을 덧붙인 연구서이다. 국립청주박물관(2011)에서는 대표적인 왕실 인간첩인 〈숙명신한첩〉을 영인하고, 판독문과 현대어역, 주석을 실었다. 또 체재와 성첩 시기, 발수신자 및 관련 인물 등을 밝힌 이종덕(2011), 세대별 언어 특징과 경어법 사용 등에서 국어학적 특징을 고찰한 박부자(2011), 한글 서체상의 가치를 다룬 정복동(2011) 등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기대(2012)에서는 〈명성성후어필〉에 수록된 편지 10건의 문헌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주로 역사적 사실과 편지 내용을 관련 짓고, 명성황후와 민옹식, 민병승 부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편지 이미지를 수록하고 있다.
- 6) 일반인의 필적과 달리 왕실, 특히 군왕이나 왕후의 친필 문서는 민간에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모사 후 궁으로 반송하거나 세조 혹은 소각하도록 하는 금기가 있어 민간에 군왕이나 왕후의 친필 원본이 전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므로(金一根, 1986·1999) 왕실 인간 자료가 희소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공주가에서 이 금기를 어기고 군왕이나 왕후 또는 대비에게서 온 친필 인간을 보관하여 전하는 것과 친필을 모사하여 전하는 것이 있다. 이종덕, 앞의 논문, 6쪽 제인용.



그림1-〈숙휘신한첩〉 표지
(계명대학교 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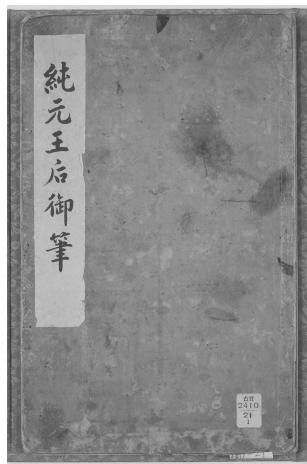


그림2-〈순원왕후어필〉 표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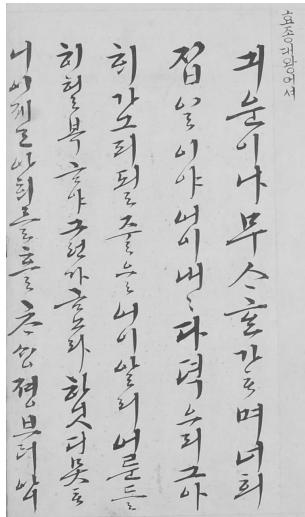


그림3-〈숙명신한첩〉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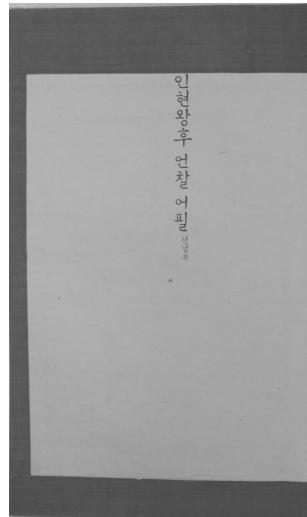


그림4-〈숙휘신한첩〉 내지

〈숙휘신한첩〉, 〈숙명신한첩〉, 〈정조어필한글편지첩〉 등과 같이 성첩되어 전하는 왕실 연간은 그림1-그림4에서 보듯이 주로 '신한(宸翰)'이나 '어필(御筆)'이라는 표제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첨의 내지에 성첩자가 적어 놓은 부기(附記)에도 '어서(御書)'나 '어필(御筆)'로 나타난다. 이는 왕과 왕비의 글씨를 수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⁷⁾ 한편 날장으로 전하는 연간들은 주로 서예전의 도록에 실려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⁸⁾ 이 글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왕실 언간은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전3권)』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렇게 자료를 한정한 이유는 이 자료집에 실린 왕실 언간은 언간의 이미지를 영인본이나 도록, 소장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전문가들이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충분히 판독을 검토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전3권)』에 수록된 왕실 언간 외에 〈정조어필한글편지첩〉에 실린 정조의 언간을 추가하였다.⁹⁾ 〈정조어필한글편지첩〉¹⁰⁾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간행한 도록을 통해 이미지와 판독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일근(1986·1999)에 수록된 왕실 언간이 더 있지만, 원본 이미지를 통해 판독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부득이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왕실 언간을 제시하면 (1)의 목록과 같다.

(1) 연구 대상의 목록¹¹⁾

	명칭	악칭	건수	작성 시기
1	선조대왕 언간	선조	1	1603년
2	효종대왕 언간	효종	1	1641년
3	숙희신한첩	숙희	35	1653-1696년
4	숙명신한첩	숙명	67	1652-1688년
5	해주오씨 오태주가 『어필』 소재 명안공주 관련 언간	명안어필	12	1665-1683년
6	정조어필한글편지첩	정조어필	16	1755-1798년
7	정순왕후 언간	정순왕후	1	1759-1805년
8	순원왕후 언간	순원왕후	1	1802-1857년
9	순원왕후어필	순원어필	25	1837-1852년
10	순원왕후어필봉서	순원봉서	33	1840년대 초반- 1850년대 중반

7)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신한’을 “임금이 몸소 쓴 문서나 편지”로 풀이하고, ‘어필’과 ‘어서’를 “임금이 손수 글씨를 씀. 또는 그 글씨”로 풀이하고 있다.

8) 예술의 전당에서 발간한 〈한글서예변천전〉이나 〈朝鮮王朝御筆〉과 같은 도록이 대표적이다.

9)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전3권)』에도 정조의 언간이 3건 실려 있는데, 이 3건 모두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정조어필한글편지첩〉에 수록되어 있다.

10) 편지의 명칭 및 편지번호는 국립한글박물관(2014)의 것을 따랐으며, 편의상 〈정조어필-01〉, 〈정조어필-02〉와 같이 약어를 사용하였다.

11) 각 언간에 대한 자세한 해제는 황문환·임치균·전경목·조정아·황은영(2013)의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1-3권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명칭	약칭	건수	작성 시기
11	효정왕후 언간	효정왕후	1	1845-1887년
12	신정왕후 언간	신정왕후	2	1875-1890년
13	조용선 편저 『봉서』 소재 언간	봉서	40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14	홍선대원군 언간	홍선대원군	4	1882-1885년
15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언간	명성황후	134	1882-1895년
16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궁녀 언간	명성궁녀	36	1883-1895년
17	순명효황후 언간	순명효황후	10	1894-1904년
18	명성성후어필 언간	명성어필	10	1894년경
계(건)			429	

이 글에서 총 429건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이 언간들을 대상으로 물명을 추출했다는 뜻이지 429건 모두에 물명이 나타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1)에 제시한 대상 자료 중에도 언간별로 물명이 나타나는 양상은 매우 다르다. 홍선대원군 언간이나 순명효황후 언간 등에는 물명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또 순원왕후어필과 순원왕후어필봉서는 편지 내용이 매우 길고 건수도 적지 않지만 몇몇 물명만 나타났다. 반면, 언간의 총 건수는 많지 않지만, 세찬 물목이 성첩되어 있는 <정조어필한글 편지첩>의 경우는 다양한 물명이 나타났다. 이는 수신자와의 관계나 편지를 쓰는 목적,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 등에 따라 언간별로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언간별로 나타나는 추출한 물명의 목록을 제시하면 (2)와 같다.

(2) 언간별 물명 목록

약칭	물명
숙휘	의복, 흉비, 음식, 흥두, 찬물, 반찬, 밥, 진지, 슈라, 죽, 오티, 약, 금은화다, 청심원, 닙효산, 우횡낭격원, 양심합, 산침, 병경문
숙명	옷, 누비옷, 핫옷, 당자구리, 자근자구리, 사모, 이엄, 노리개, 돈피, 쥐갓, 음식, 아침, 화복, 쪽, 데전각, 싱티, 고기, 슈라, 밥, 된밥, 약, 닙효산, 낭식 청심원, 스물탕, 황감, 감자, 유감, 베개, 좀벼개, 녹식축, 칼능, 왜능화, 악착 흉녕, 환선, 실탑, 움동이, 괴양이, 봉상루, 봉상, 승희연, 침방, 온돌, 슈진궁, 대조연, 대연, 능, 병풍석, 치마벽석, 녹의인연, 하복니장군연, 슈호연
명인어필	음식, 티라邋, 전, 밥, 누물, 병풍
정조어필	죽건, 세찬, 인삼, 전문, 미, 광어, 청어, 싱대구/싱대구어, 반건대구어, 싱강요 죽, 히란, 감동해, 싱치, 건시, 대건시, 빅청, 전약/면약, 왜감자, 산풀, 향초

약칭	물명
정조아필	연득, 거히, 대전복, 츄복, 고치, 민강, 경조연득, 간득, 구간득, 모즈, 진소, 불염석어, 슈어, 잡혜, 익이, 황다, 청다, 쥬촉/주촉, 오덕어, 민어, 석어, 삼제, 악삼, 식물
정순왕후	낭조, 팔지, 타락, 벼로, 벼로집, 필목, 끙, 윷판, 유연목
순원아필	썩, 대궐, 궁, 종묘 희궁
순원봉서	후릉, 희릉, 창능, 동팔능, 영묘, 경모궁, 효명덴, 왕릉
봉서	공복, 조복/묘복, 슈즈 흥비, 흥당삼/흥장삼, 후슈, 폐슬, 패옥, 초록단녕, 초록작녕, 거히, 텅제, 이동탕, 공심탕제, 늑군즈탕, 상약, 율당, 작설차, 시당, 쥬, 가족
순원왕후	기화
명성황후	박하유, 응담, 양간, 만경전, 등궐, 진찬소
명성궁녀	의디, 회복, 빈허, 비취육빈허, 빅육민화잠, 산호구이기, 진분홍가로, 취월가로, 다흥가로, 셔양수, 셔양목, 텅제, 히삼, 흥압, 밀썩, 약,
홍선대원군	신문지

III. 왕실 언간의 물명 분류

(2)에서 언간별로 정리된 물명을 다시 의생활 관련 물명, 식생활 관련 물명, 주생활 관련 물명, 기타 물명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의생활 관련 물명은 다시 의복, 옷감, 장신구로 구분하였다. 식생활 관련 물명은 재료명·음식명·약명으로 분류하고, 주생활 관련 어휘는 건물명·능(陵)명 등으로 구분하였다. 기타 물명에는 문구류와 생활용품, 책 등이 있었다.

1. 의생활 관련 물명

(3)

의복 = 의디 = 옷	의례복	공복, 조복/묘복, 초록단녕, 초록작њ, 흥당삼, 흥비, 슈즈 흥비, 후슈, 폐슬, 패옥, 사모
	일상복	누비옷, 핫옷, 당져구리, 자근져구리, 나비, 족건, 이엄, 모즈
옷감	직물명	셔양수, 셔양목
	털/가죽	돈피, 가죽, 쥐갓, 거히
장신구	머리 장식	빈허, 비취육빈허, 빅육민화잠, 산호구이기
	몸 장식	노리개, 팔지, 낭조

의생활 관련 물명 중 가장 상위 개념인 ‘의복(衣服)’은 ‘의덕(衣襍)’과 ‘옷’으로도 나타난다. 한자어 물명 ‘의복’, ‘의덕’가 고유어 물명 ‘옷’과 유의관계를 이루고 있다. 왕실 언간에서 용례가 많지 않아 이 세 가지 물명 간의 쓰임의 차이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사대부 언간에서도 ‘의복’, ‘의덕’, ‘옷’이 모두 나타난다.

(4)

- 가. 상소의 의복은 조겨를 싱각호으면 머어시 귀호으며 잇가온 거시 잇소오링잇가마는 혼 가지 것도 경과 끄습디 아니호오니 더욱 셉셉 굿브오이다 <숙휘-30, 1662, 명성왕후(율케) → 숙휘공주(시누이)>
- 나. 고간의 돈이 업소와 혼오니 단오 의덕의 혼는 딕 칙축호오니다 <명성궁녀-17, 1883-1895, 미상 → 민영소>
- 다. 원상의 성일의 오손 조각 모화 혼여 준 거시 머어시 이젖호리 <숙명신한첩-36, 1660-1674, 인선왕후(어머니) → 숙명공주(딸)>

(5)의 ‘공복, 조복/뇨복, 초록단녕, 초록직녕, 흥당삼, 흥비, 슈즈 흥비, 후슈, 폐슬, 패옥, 사모’ 등은 모두 조선시대 왕실에서 혼례나 관례 등이 있을 때 입는 의례복과 관련된 복식명이다. 사대부 언간에서도 편지의 발신자나 수신자가 신하인 경우 신하의 관복이나 예복과 관련한 복식명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후슈, 폐슬, 패옥’ 등은 왕실 언간에만 등장하는 물명이라고 할 수 있다.

(5)

- 가. 길례 시 째 대감 관네 시와 길례 시의 두 순의 다 공복이 잇셔스오니 그져 잇습는디 공복 혼 별만 혼읍고 그째 관네 시의 조복을 입어 겨오시면 잇소을 듯호오니 뇨복하고 뇨복의 짜로인 갓초미 안고읍고 조가 슈즈 흥비도 잇소을 거시니 흥비와 조가 흥당삼의 안고인 후슈 폐슬 패옥은 끼이와소을더라도 그려 끼이읍고 잇소을 듯호오니 혼티 드려보너오시고 삼간틱의 입고 나가오신 초록단녕도 잇습거든 혼티 드려보너오쇼서 <봉서-15, 1871-1874, 원상궁 → 미상>
- 나. 흥비는 경영호여 혼 거시 지극디 못호니 혼여 주는 보람이 업서 서운호여 혼더니 인소조차 혼여시니 몬내 웃노라 <숙휘-24, 1653-1674년, 인선왕후(어머니) → 숙휘공주(딸)>
- 다. 악착 흥녕 혼 장은 보내라 혼야시매 이러 나아간다 <숙명-10, 1661, 현종(남동생) → 숙명공주(누나)>

한편 (5다)는 기존 논의에서 ‘악착스럽고 독하게 (편지) 한 장은 보내라고 하였으므로 이렇게 보낸다’ 정도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장(張)’의 표기가 구개음화를 경험한 표기로 보아 1660년대 중앙어에서 구개음화를 겪기 시작한 사람이 있음을 보여준다¹²⁾고 하였다. 그러나 ‘악착 흥녕’을 물명으로 본다면,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있다. 이 문장은 편지의 추신 부분으로 현종이 손아래인 숙휘공주와 숙정공주에게 한 말이다. ‘악착’은 봉황을 뜻하는 ‘악착(鷲鷺)’¹³⁾일 가능성성이 있다.¹⁴⁾ 그렇다면 ‘흥녕’은 봉황 무늬의 어떤 복식명이나 휘장명이고, ‘장’은 그것을 세는 단위명사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 중인 흥배 수본(繡本)이나 유물, 사진 중에 조선시대 왕실 여성 복식의 흥배에 쓰이던 봉황 흥배가 전하고¹⁵⁾, 장서각 소장의 궁중발기에도 흥배를 하사한 기록이 있다.¹⁶⁾ 현전하는 유물이나 사진 속의 봉황 흥배는 왕비나 후궁, 옹주 등의 원삼용이나 당의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숙휘와 숙정공주를 위해 현종이 편지와 함께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흥녕’이 문증되지 않아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또는 ‘악착 흥녕 훈’을 ‘악착하고 흥녕한’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끔찍하고 흥악하고 사나운’으로 해석된다. 이때 ‘악착흥녕한’의 수식을 받는 ‘장’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6)

- 가. 어린 아희 누비웃도곤 핫웃 띠니 니벗는 상이 알온스라워 에엿브느라 <숙명-36,
1661, 인선왕후(어머니)→숙명공주(딸)>
- 나. 숙휘 가판 미쳐 당져구리 쟈근져구리 뮬라 가니 미쳐 지어 니벼라 <숙명-51,
1661년, 인선왕후(어머니)→숙명공주(딸)>

12) 박부자, 「숙명신한첩의 국어학적 특징」,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국립청주박물관, 2011), 21쪽.

13) ‘鷲鷺’의 현대 한자음은 ‘악착’이지만, 1796년 간행된 『奎章全韻』(장서각소장본)을 보면, ‘鷲’의 당시 한자음이 ‘착’이라고 되어 있다.

14) 허경진 · 김형태, 『詩名多識』(한길사, 2007), 390-391쪽. “本艸曰 蔡衡云 象鳳有五。赤多者鳳 青多者鷲 黃多者鶴鵠 紫多者鷲鷺 白多者鵠。” 『본초』에 말하였다. 체형은 “봉”(봉새)과 비슷한 다섯 가지가 있다. 붉은색이 많은 것은 ‘봉’이고, 푸른색이 많은 것은 ‘란’(鳳凰의 일종. 전설상의 灵鳥)이며, 노란색이 많은 것은 ‘원추’(봉황의 일종)이고, 자주색이 많은 것은 ‘악착’(봉황의 일종)이며, 흰색이 많은 것은 ‘곡’(고니 · 天鵝 · 黃鵠)이다”라고 했다.

15)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도록 제9책 궁중복식 본』(그라픽네트, 2014), 132-133쪽.

16) 일례로 1876년 ‘대신대감 진갑신신 의복불기’를 보면, ‘금빵학 흥비 일 빵’을 하사했는데, 흥배 앞에 수를 놓은 동물명이 제시되어 있다.

- 다. 이 족건은 내게 죽스오니 슈대 신기옵쇼서 〈정조어필첩-01, 1755-1759년 2월 이전,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 라. 사모 이엄은 돈피가 뜻이 아니호니 늦업더라 쓰니는 엇더호더니 〈숙명-62, 1664-1669, 인선왕후(어머니) → 숙명공주(딸)〉

(6)에 제시된 물명들은 조선시대 왕실의 일상복 명칭이다. 이는 사대부 인간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족건’과 같은 경우는 사대부 인간에는 나타나지 않고, ‘보선, 벼선’ 등이 쓰인다. 의궤나 실록에는 ‘襪, 襪子’가, 발기에는 ‘족건, 족건차(足巾次)’가 등장한다.

(7)

- 가. 셔양스 삼 필 셔양목 일 통만 드려보너 쥬시고 너 증장부터 무식흔 것과 쐐러진 거 고친 갑 쥬기소오니 여러 둘이 되와소오니 오늘노 전 빅 낭만 낸지시 비즈 흐여 드려보너 쥬옵소서 〈명성궁녀-14〉
- 나. 돈피 두 넣간다 쿠니와 그거시 쥐갓 끽튼니 반풀이나 드려야 기울가 시브다 〈숙명-23, 1652-1674, 인선왕후(어머니) → 숙명공주(딸)〉
- 다. 흥양은 진양을 빗치고 쪘 거히을 보내시니 불안호외다 〈봉서-35, 1866-1895, 명성황후(이종질녀) → 한산이씨(이모)〉

(7가)는 옷감 중에 직물명이 쓰인 예이고, (7나)는 가죽, (7다)는 솜이 나타나는 예이다. 사대부 인간에서는 ‘거히’는 나타나지 않고 ‘결관 니블’의 둘 소윤 낫지 마옵소 〈송준길가-58, 1748, 송익흡(남편) → 여홍민씨(아내)〉와 같이 ‘소음’이 나타난다.

(8)

- 가. 여고셔는 한가지옵고 빈혀 보아 겨신잇가 화복의 쟁질 거시옵느이다 〈명성궁녀-21, 1883-1895, 미상 → 민영소〉
- 나. 비취옥빈혀 구키 어려서거든 빅옥민화잡이라도 소소로 구호와 쥬시고 산호구이 긴랑 구호와 속히 어더 쥬시기 브리옵느이다 〈명성궁녀-22, 1883-1895, 미상 → 민영소〉
- 다. 어제 네 형은 출 노리개엣 거슬 숙휘지이 만히 가지되 네 목은 업스니 너는 그스이만 흐야도 하 어떤 일이 만흐니 애들와 덕노라 〈숙명-01, 1652-1659, 효종(아버지) → 숙명공주(딸)〉
- 라. 낭조 혼나 보낸다 아히 팔지 혼나 오늘은 복 엇는 날이기 벼로집이 남기로 너 보낸다 〈정순왕후-01, 1759-1805, 정순왕후(숙모) → 미상(조카)〉
- 마. 고간의서 진분홍가로 고흔 취월가로 혼고 보라로 다홍가로 좀 서너 명 쇠쇠

(8)은 장신구가 나타나는 예이다. 머리 장식으로는 비녀가 나타나고, 몸 장식으로는 노리개, 팔지, 낭자가 나타났다. ‘백옥미화잠(白玉梅花簪)’에서 보듯이 장신구 명칭 앞에는 그 장신구의 [재료/소재]를 나타내는 요소와 [모양]을 나타내는 요소가 차례로 붙는다. (8마)는 분(粉)을 의미하며 오늘날의 화장품에 해당된다.

2. 식생활 관련 물명

왕실 연간에 나타난 식생활 관련 물명을 사대부 연간과 비교하면, 탕제와 같은 약명이 자주 보인다. 사대부 연간은 음식재료, 즉 채소나 과일, 어육류 등이나 술 종류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왕실 연간은 술의 명칭은 나타나지 않고, 약의 기능을 하는 차(茶)의 명칭이 나타난다. 왕실 연간에 나타난 물명을 의미 부류에 따라 정리하면 (9)와 같다.

(9)

재료명	곡식	미, 흥두, 의이
	육류	고기, 칭치/설타, 고치, 오토, 데전각, 웅담, 양간
	어패류	광어, 청어, 성대구/성대구어, 반건대구어, 불염석어, 슈어, 오덕어, 민어, 석어 대전복, 츄복, 성강요주, 성삼, 흥압
	과일	건시, 대건시, 왜감자, 산귤, 황감, 감자, 유감
	채소	느물
음식명	주식	밥, 된밥, 진지, 슈라, 죽, 야침
	반찬=찬물	전, 전약/면약
	병과	썩, 밀썩, 화복, 민강, 울당, 시당, 타락득
	젓갈 및 양념	하란, 감동혜, 잡혜, 빅청, 빅하유
	음료	타락, 금은화다, 황다, 청다, 작설차
약명	탕제/탕제	삼제, 이동탕, 공심탕제, 수를탕, 뉴군조탕
	가루약	닙효산
	환	우황낭격원, 안신환, 청심원
	약재명	인삼

(10)

- 가. 데전각 혼나 성티 세 간다 <숙명-47, 1652-1674, 인선왕후(어머니)→숙명공주(딸)>
- 나. 광어 이 미 츄복 십 접 싱대구어 일 미 청어 일 급 고치 일 슈 싱치 삼 슈 <정조어필첩-09, 1793, 정조(조카)→여홍민씨(외숙모)>
- 다. 찬물이 이째 막 어려운 적이니 성훈 사름도 맞당이 머글 거시 업거든 병둥 반찬이 더 그러 아니하랴 으티는 먹다 혼니 깃거호노라 <숙휘-19, 1653-1662, 인선왕후(어머니)→숙휘공주(딸)>

(10)에서는 생치, 즉 꿩고기의 대한 다양한 명칭을 알 수 있다. 사대부 인간에서는 ‘싱치(生雉)’와 ‘건치(乾雉)’ 두 가지 명칭만 등장하지만, 왕실 인간에서는 ‘고치’와 ‘으티’라는 명칭도 나타난다. ‘고치(膏雉)’는 살찐 꿩고기를 의미하고, ‘으티’는 어린 꿩을 뜻하는 ‘아치(兒雉)’이다. 이렇게 좀 더 분화된 형태의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꿩이 왕실에서 보편화 된 식재료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1)

- 가. 이 황감 칠 미 극쇼 블관호오나 정으로 모도온 거시라 가오니 적다 마옵시고 웃고 자읍쇼셔 <숙명-11, 1659-1674, 현종(남동생)→숙명공주(누나)>
- 나. 이 감즈는 어디 아닌 거시니 병둥의 보내기 열 보내노라 <숙명-22, 1652-1662, 인선왕후(어머니)→숙명공주(딸)>
- 다. 유감은 므르온 거시 열널굽이어늘 숙안의게하고 네게하고 눈호니 혼나히 남거늘 마시나 보고 보내게 더 녀헛더니라 <숙명-27, 1659-1674, 인선왕후(어머니)→숙명공주(딸)>
- 라. 견시 일 접 왜감즈 십 기 산굴 삼십 기 <정조어필첩-08, 1776-1791>
- 마. 대견시 일 접 <정조어필첩-13, 1796>

과일로는 ‘황감, 유감, 감즈, 왜감즈, 산굴’과 같은 풀 종류와 ‘견시, 대견시’와 같은 곶감이 나타난다. 사대부 인간에도 (11)과 같은 물명은 자주 등장하지만, 용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대부 인간의 풀 종류는 모두 제사에 쓰는 제수(祭需)였다면, 왕실 인간에서는 어머니 인선왕후와 남동생 현종이 숙명공주에게 먹으라고 보내는 과일이다. ‘황감, 유감, 감즈, 왜감즈, 산굴’은 풀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¹⁷⁾

17) 丙寅/諭濟州都按撫使曰：“柑橘薦宗廟，供賓客，其用甚切。獻議者以爲，‘諸菓之中，金橘，乳柑，洞庭橘爲上，柑子，青橘次之，柚子，山橘又次之。[...] 又橘柚，大抵三月結實，九月

(12)

- 가. 날포 드려와 든든이 디내다가 훌텨 나가니 섭섭하기 아브라타 업서 오던 빼를 싱각고 더욱 섭섭하니 슈라나 먹어도 마시 업술가 일^국르며 〈숙휘신한첩-12, 1642-1688, 장렬왕후(계조모) → 숙휘공주(손녀)〉
- 나. 숙정 즓겨 니^국옵시거늘 듯^즈오니 진지를 두서 술은 계유 자읍신다 흐오니 아^무리 설습셔도 두로 싱각^흐옵 〈숙휘신한첩-30, 1662, 명성왕후(을케) → 숙휘공주(시누이)〉
- 다. 슈라도 작자 흐나 즓로 먹으니 이제란 근심 마라 〈숙명-45, 1649-1659, 인선왕후(어머니) → 숙명공주(딸)〉
- 라. 아^무려나 진지나 잘 자읍시고 모^모음을 위로^흐여 디내옵시를 수업시 브라옵노이다 〈숙휘신한첩-30, 1662, 명성왕후(을케) → 숙휘공주(시누이)〉

(13)

- 가. 우흐로 부모를 싱각하고 싱심도 무익흔 슬쑤지 말고 밥이나 힘舛 먹고 병드러 근심 기티디 말아 〈숙명-06, 1654-1658, 효종(아버지) → 숙명공주(딸)〉
- 나. 부마는 몸이나 무스히 잊는가 흐며 졸곡이 디나시니 된밥이나 시로이 먹는가 물과 답답^흐여 흐노라 〈숙명-34, 1662, 인선왕후(어머니) → 숙명공주(딸)〉
- 다. 아^하가 헨 업서 입이 슬타 흐고 밥을 일절 아니 먹는가 시브니 비록 슬흘들 고로온 뿐 약도 먹느니 약 사마 먹어야 원기를 아니 도으라 네 브티 즓로 가 보고 아니 먹거든 꾸짖고 끄끔 덕어 드려라 〈숙명-57, 1659-1671, 인선왕후(어머니) → 숙명공주(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수라(水刺)’를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 ‘수라’는 여진어 ‘후루’에서 온 것으로, ‘후루’ > ‘후라’ > ‘수라’의 변화를 거쳤다고 하며, 한자로는 ‘水刺’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이 편지의 ‘수라’는 장렬왕후 자신의 밥을 가리키므로 꼭 임금의 밥만 수라라고 칭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올케인

始熟, 至冬乃成, 半熟時取子種之, 則乳柑爲柑, 柑爲柚, 柚爲枳, 待明年三四月爛熟, 取子種之, 則半成本色, 半成他種, 自今依法取子…….” 『세조실록』 세조 1년(1455) 12월 25일 기사.

제주 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감귤(柑橘)은 종묘(宗廟)에 천신(薦神)하고, 빈객(賓客)을 대접하므로, 그 쓰임이 매우 절실하다. 현의(獻議)하는 자가 말하기를, ‘여러 과실 중에서 금귤(金橘)과 유감(乳柑)과 동정귤(洞庭橘)이 상품이고, 감자(柑子)와 청귤(青橘)이 다음이며, 유자(柚子)와 산귤(山橘)이 그다음인데, [...] 또 귤(橘)과 유자는 3월에 열매를 맺어 9월에 익기 시작하여 겨울에 따는데, 반쯤 익었을 때에 씨를 받아 심으면, 유감이 감자가 되고, 감자가 유자가 되고, 유자가 탱자(枳)가 되며, 명년 3·4월 무르익을 때를 기다려서 씨를 받아 심으면, 반은 본 나무가 되고, 반은 다른 종자가 되니, 이제부터 법대로 씨를 받게 할 것이며,…….”(한국고전총합 DB 번역)

명성왕후는 숙휘공주의 밥을 ‘진지’라고 하였다. 아버지 효종이 딸인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밥’이라고 하였다.

(14)

- 가. 타락 보내니 먹어라 <정순왕후-1, 1759-1805, 정순왕후(숙모) → 미상(조카)>
〈명안어필-08, 1667-1683, 명성왕후(어머니) → 명안공주(딸)〉
- 나. 음식도 어둔 니릇은 대로 삼가 잘 먹고 도히도히 잇다가 드러오나라 타락과
견 가니 먹어라 <명안어필-08, 1667-1683, 명성왕후(어머니) → 명안공주
(딸)〉
- 다. 박하유는 보냈다 <명성황후-026, 1875-1895, 명성황후(고모) → 민영소(조
카)〉
- 라. 화복은 혼 덥이 모즈라더니 이는 보태고 남기 혼여시니 탄일 다례에 빠움과
혼여시니 이런 성광되고 깃본 이리 업서 혼노라 <숙명-35, 1652-1674, 인선왕
후(어머니) → 숙명공주(딸)〉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타락병, 타락죽, 타락차’만 등재되어 있고, 규합총서에 타락죽이 나타날 뿐이다. 다른 조리서에도 ‘타락목’은 나타나지 않는다. (14)의 음식명들은 사대부 연간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왕실 인간에서 나타나는 음식명들이다. ‘화복’은 탄일 다례에 쓴다고 하였으므로 ‘화복(和服)’으로 해석¹⁸⁾하는 것보다 ‘화복(花鰯)’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도문대작>(1611)에는 ‘화복(花鰯)’이란 이름 아래 ‘경상도 바닷가 사람들은 전복을 꽂 모양으로 꺾아 이것을 꽂는다. 또 큰 것은 얇게 편을 떠서 만두를 만들면 또한 좋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전복 말린 것, 즉 건전복을 얇은 칼로 오려내어 꽂으로 만든 것을 지칭하며 만두 운운한 것은 이른바 오늘날의 전복쌈이다.¹⁹⁾

(15)

- 가. 탕제는 그동안 이것저것 소조지제를 만히 진어호 으오시옵다 이전 진어호 으오시
옵던 이동탕 수일지 신후 잡소오시옵고 공신탕제도 이전과 끄치 진어호 으오시느
이다 <봉서-01, 19세기 후반, 천상궁(미상) → 윤옹구(미상)>
- 나. 탕제는 치약브터 눅군조탕 십 텁 진어호 으오시게 의정호와습느이다 <봉서-02,
19세기 후반, 서기 이씨 → 미상>

18) 『표준국어대사전』에도 ‘화복(和服)’을 “물, 술, 미음 따위에 가루약을 타서 먹는 일”이라고 풀이했는데, 국립청주박물관(2011)에서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19) 김상보, 『조선시대의 음식문화』(가람기획, 2006), 264쪽.

(15)는 왕에게 올리는 탕제(湯劑)에 대해 보고하면서 물명이 등장하는 경우이다. 이중탕과 공심탕제, 육군자탕은 복통이나 설사, 위장질환 등에 쓰이던 처방이다. 또한 이들 물명은 왕이 먹고 입는다는 뜻인 ‘진어(進御)하다’ 동사와 함께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물명의 통합관계까지 다루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과제이다.

(16)

- 가. 난상이는 종이 미련하여 춘부름을 빼여 두드려이가 불의예 도다 브어오르니 거특이 놀라와 하더니 즉시 유모 약도 하여 머기고 저도 금은화다의 청심원을 빠 머기고 씀을 내니 즉시 나자 도히 있다 <숙희신한첩-17, 1642-1674, 인선왕후(어머니) → 숙희공주(딸)>
- 나. 내 니질은 어제 넙효산 두 덤을 먹으니 빅니 섯겨 나던 거순 업스되 도수 조기는 감티 아녀 아격 두 번 둔넷노라 ㅋ니와 대단티 아니하니 넘너 마라 <숙희신한첩-23, 1653-1662, 인선왕후(어머니) → 숙희공주(딸)>
- 다. 니질처로 고운 휘잡하는 거시 업느니 상약 율당 작설차 진히 달하고 사당 설 타셔 혼 탕과가 되던디 삼叟 ㅊ식 먹으면 설변이 되여 나은 일도 이시니 명약도 먹으려니와 이것 시험하여 보소 <봉서-09, 1837-1844, 순원왕후(장모) → 윤의선(사위)>

(16가)와 (16나)는 인선왕후가 자신의 병이 ‘금은화다, 청심원, 넙효산’을 먹고 난 후 좋아졌다는 안부를 딸인 숙희공주에게 전하는 내용이다. (16다)는 장모인 순원왕후가 사위가 이질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약과 더불어 밤엿과 작설차를 진하게 달이고 사탕을 타서 먹으면 좋다는 민간요법을 권하는 내용이다.

(17)

- 가. 숙경이는 돌립니질을 어덧는가 시브니 그런 심심 민망한 이리 업서 흐노라 넙효산 가시니 공심의 구튀여 머그려 말고 오늘 두 번 머그라 널려라 <숙명-18, 1659-1662, 인선왕후(어머니) → 숙명공주(딸)>
- 나. 우황냥격원은 잊습는 거시 다만 이뿐이오니 두 환 가옵느이다 안신환도 가옵느 이다 <숙희신한첩-31, 1681-1685, 인현왕후(조카며느리) → 숙희공주(시고 모)>
- 다. 냉식 청심원은 아격 보내엿더니 갓던가 흐노라 <숙명-53, 1652-1674, 인선왕후(어머니) → 숙명공주(딸)>
- 라. 스물탕은 먹으니 엊던고 흐노라 복동 혀이는 거순 브습 증으로 그런고 민망하며 약이나 머거 흐릴가 흐노라 <숙명-55, 1655, 인선왕후(어머니) → 숙명공주

(딸)»

- 마. 일기 하 덥스오니 드려와 노양호옵실 거시기 삼제 오 첨 보내오니 드리오시기
전의 잡습고 드려오실가 호옵느이다 <정조어필첩-10, 1795,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 바. 약삶 두 냥 보내옵느이다 <정조어필첩-11, 1795,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
모)»
- 사. 이 웅답은 품이 미오 조카 혼 부를 보너니 어서 낫기 조인다 <명성황후-027,
1881-1895, 명성황후(고모) → 민영소(조카)»
- 아. 양간이 안질의 미오 조타기 보너니 충경이 먹이면 조케다 <명성황후-048,
1881-1895, 명성황후(고모) → 민영소(조카)»

(17)은 왕이나 왕후가 공주나 조카, 숙모 등에게 약을 보낸 경우이다.
비교적 약재나 처방을 구하기 용이하던 궁중에서 왕족들의 건강을 걱정하
여 약을 마련해서 편지와 함께 보냈기 때문에 사대부 언간과 비교하여
전체 음식명 중에서 약재 및 약의 비중이 높다.

(18)

- 가. 세찬은 희마다 보내옵던 거시기 으젓지 못호오나 수대로 보오쇼셔 <정조어필첩
-12, 1795,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 나. 세찬 수동은 보내오니 보옵실가 호옵느이다 <정조어필첩-13, 1796,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세찬(歲饌)’은 연말에 선사하는 물건으로 세의(歲儀)라고도 한다.²⁰⁾
정조어필첩의 8, 9, 12, 13번 편지에는 정조의 편지와 함께 세찬의 목록도
함께 성첩되어 있다. 세찬은 인삼과 돈을 비롯하여, 어육류, 과일류,
차(茶)나 음식, 초나 담뱃대 등 다양한 품목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9번과 13번 편지는 물목 단자의 끝부분에 ‘내탕지인(內帑之印)’이라
는 도장이 찍혀 있다. 이는 내탕고에 있던 물품을 보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도장을 찍은 것이다.²¹⁾ 세찬 물목을 쓴 필체가 편지 본문의

20) 정조가 외사촌동생인 홍취영(洪就榮, 1759-?)에게 보낸 한문 간찰에서는 연말 선물이
라는 뜻으로 세찬(歲饌), 세의(歲儀) 외에도 세제(歲餉), 세향(歲餉)이라고 하였다. 연
말에 보낸 편지에는 대체로 세찬 물목을 덧붙이고, 홍취영에게 주는 것과 다른 곳에
보낼 것을 꼼꼼하게 적어 놓았다. 한문 간찰 본문과 물목의 필체가 동일하고 언간에서
와 같은 ‘내탕지인’ 도장은 찍혀 있지 않다는 점이 언간과는 다른 점이다. 정조가 홍취
영에게 보낸 한문 간찰은 삼성미술관 Leeum에 소장되어 있으며, 아래 책에서 영인,
역주되어 참고가 된다. 임재완, 『정조대왕의 편지글』(삼성문화재단, 2004).

정조의 필체는 아니지만, 성첩할 때 이렇게 세찬 물목도 빠뜨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잘라서 여백에 붙여 놓았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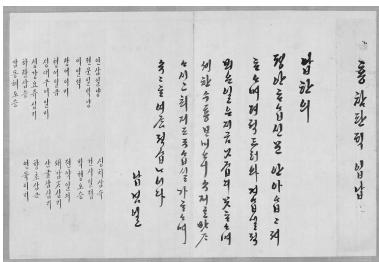


그림5-정조어필첩-8(국립한글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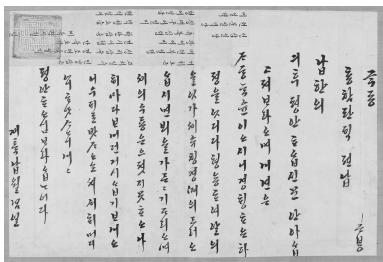


그림6-정조어필첩-9(국립한글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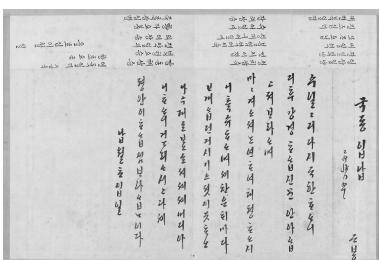


그림7-정조어필첩-12(국립한글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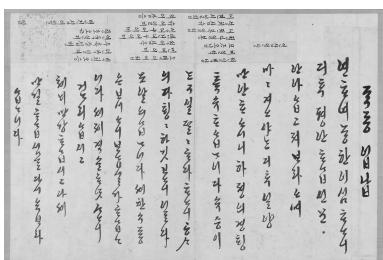


그림8-정조어필첩-13(국립한글박물관 소장)

(19)에 제시한 표는 정조어필첩에 나오는 세찬 물목 중에 돈과 모자, 초와 담뱃대 등을 제외하고 식생활 관련 물명만 정리한 것이다. 4건의 편지에 빠지지 않고 모두 등장하는 것은 인삼, 쌀, 생대구, 꿩, 꽃감, 전약²³⁾, 꿀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패류의 비중이 높은 것도 하나의

21) 국립한글박물관,『김씨부인한글상언·정조어필한글편지첩·곤전어필』(2014), 38~39쪽, 46~47쪽.

22) 이는 은사문을 모아서 은사첩을 만들어 보관한 것과 같은 이유인 듯하다. 해남윤씨 녹우당에서 소장 중인 은사첩(恩賜帖)에는 윤선도가 인조, 인열왕후(인조비), 봉립대군 등으로부터 받은 총 94장의 은사문(恩賜文)이 수록되어 있다. 은사의 물품은 어육류, 과일, 음식, 곡식, 부채 등 왕실 인간에 나타난 물명과 유사한데, 한자나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물품의 목록은 김봉좌(金奉佐, 2006:242~249)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왕실에서 물품 등을 하사하면서 발급하는 은사문을 은사첩의 형태로 소중히 보관한 것처럼 왕에게서 받은 한글편지뿐만 아니라 연말 선물 목록까지도 영광스럽게 여겨서 소중히 보관한 것이 아닐까 한다.

23) 전약(煎藥)은 약재를 넣은 족편의 일종인데 겨우내 몸을 보해주는 음식이었다. 궁중에서는 동짓날 내의원에서 만들어 임금에게 진상하면 임금이 이를 다시 신하들에게 하사하였다고 한다.

특징이다. 음식명 중 어폐류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인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19)

품목 \ 시기	정조어필첩-08 (1776-1791)	정조어필첩-09 (1793)	정조어필첩-12 (1795)	정조어필첩-13 (1796)
곡식류	인삼 일 낭	인삼 일 낭	인삼 일 낭	인삼 일 낭
	미 일 석	미 일 석	미 일 석	미 일 석
	×	×	의이 삼 승	의이 삼 승
어폐류	광어 이 미	광어 이 미	×	×
	청어 일 급	청어 일 급	×	×
	×	×	×	민어 이 미
	×	×	×	오덕어 이 접
	성대구 일 미	성대구어 일 미	성대구어 일 미	성대구어 이 미 빈건대구어 이 미
	×	×	불염석어 이 슈	석어 삼 속
	×	×	슈어 일 미	슈어 일 미
	성강요주 십 기	×	×	×
	×	대전복 일 접 츄복 십 접	대전복 일 접	대전복 일 접
육류	성치 삼 슈	성치 삼 슈 고치 일 슈	성치 삼 슈	성치 삼 슈
과일	왜감자 십 기	×	×	×
	산귤 삼십 기	×	×	×
	건시 일 접	건시 이 접	건시 이 접	대건시 일 접
젖갈류	하란 삼 승	하란 삼 승	×	×
	감동혜 오 승	×	감동혜 삼 승 집혜 삼 승	×
음식명	전약 일 괴	전약 일 괴	전약 일 괴	던약 일 괴
	×	민강 삼 근	×	×
꿀	릭청 오 승	릭청 오 승	릭청 오 승	릭청 오 승
차	×	×	횡다 오 봉	청다 일 봉

3. 주생활 관련 물명

(20)

건물명	양심합, 경모궁, 효령면, 만경전, 동궐, 봉상, 승회면, 슈진궁, 대조면, 대면, 동궁
능(陵)명	후릉, 희릉, 창능, 동팔능, 영묘,
기타	침방, 고간, 진찬소, 병경문, 온돌

왕실 인간에 나타나는 물명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주생활 관련

물명 중 궁궐의 건물 명칭이나 능(陵)의 명칭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왕실 구성원이 인간의 빌수신자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명칭이 인간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조선시대 궁궐의 건물은 이름도 사용목적과 격에 맞게 지어진다. 의식을 위한 공간에는 ‘궁(宮),궐(闕),전(殿),당(堂),청(廳),단(壇),묘(廟),사(祠)’ 등이 붙고, 거주를 위한 공간은 ‘각(閣),헌(軒),재(齋),사(舍),실(室),방(房)’, 수납을 위한 공간은 ‘고(庫)와 간(間)’, 여행을 위한 공간은 ‘누(樓),정(亭),대(臺),관(館)’, 출입(出入)을 위한 공간은 ‘문(門)과 누문(樓門)’ 등이 붙는다. 건물의 격은 가장 높은 것부터 ‘전(殿),당(堂),합(閣),각(閣),재(齋),헌(軒),누(樓),정(亭)’의 순서로 정해진다.²⁴⁾

(21)

- 가. 든 집이 하 옹식흐여 답답하니 승희던 침방 온돌 훈편의 드리려 희되 가상이는
알파하니 출입의 텁샹흘가 아오 몬져 보내엿노라 <숙명-30, 1659-1674, 인선왕
후(어머니) → 숙명공주(딸)>
- 나. 어제 슈진궁으로서 미 이 셱 정승 떡의 녹도 업고 제소하고 죽히 군히 지내시랴
불관하나 보내엿더니 갓던가 희노라 <숙명-40, 1662, 인선왕후(어머니) →
숙명공주(딸)>
- 다. 오늘 만경전으로 웃스며 일기는 한닝흐다 <명성황후-021, 1882-1895, 명성황
후(고모) → 민영소(조카)>
- 라. 제 집은 조바 급급흐여 그껏의 대조던서 온돌의 웃느니라 <숙명-45, 1649-
1659, 인선왕후(어머니) → 숙명공주(딸)>
- 마. 내일 동궐 가게다 <명성황후-022, 1882-1895, 명성황후(고모) → 민영소(조
카)>
- 바. 후릉 희릉이 뜻이 도흐시다 희고 창능 국너는 셋째 간다 동팔능 봉묘 터
등 달마동이 뜻이 도타 희고 다 니룬다 <순원봉서-08, 1855, 순원왕후(재종누
나) → 김홍근(재종동생)>

(22)

- 가. 여기서는 상후 문안 만안하 오오시옵고 동궁 제결 태평흐시오니 축슈흐옵고
<봉서-34, 1866-1895, 명성황후(이종질녀) → 한산이씨(이모)>
- 나. 영묘 경보궁 혈손이 상감이니 성조신손으로 나여 가시기를 축년흐옵(<순원봉서-
08, 1855년, 순원왕후(재종누나) → 김홍근(재종동생)>)

24) 문화체청 조선고궁포털사이트(<http://royalpalaces.cha.go.kr>) 궁궐의 건축 참조.

(21)은 왕실 인간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궁궐 내의 여러 전각과 능(陵)의 명칭이다. ‘동궐(東闕)’은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한 창경궁과 창덕궁을 가리키는 명칭이다.²⁵⁾ ‘동궁(東宮)’은 왕세자의 거처가 경복궁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생긴 명칭으로 ‘동궁’이라는 건물명이 이곳에 머무르는 왕세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경모궁(景慕宮)’도 조선시대에 장현세자와 그의 빈(嬪) 혜경궁 홍씨의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본래 창덕궁 안에 있었으나, 현종 5년(1839)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22)는 경모궁이라는 건물의 명칭이라기보다는 경모궁에 신위를 모시고 있는 장현세자와 혜경궁 홍씨를 가리킨다. 따라서 (22)의 궁궐 건물명은 사람이 머무르는 장소가 그 사람을 지칭하는 환유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기타 물명

(23)

문구	종이	장지, 유지, 왜능화
	필기구	벼로, 벼로집, 필복, 둑, 유연복
책	소설	녹의인연, 하복니장군연, 슈호연
	첩	왕첩
생활용품	돈	전문
	초/등	쇠축, 쥬축/주축, 면조등
	빗/부채	진소, 환선
	담배/담뱃대	향초, 연득, 경조연득, 간득, 구간득
	장식품	가화, 병풍
	놀이도구	윷판
	의료도구	산침
	그릇	실첩
동물명	동물	괴양이, 쥐

(24)

가. 아홉 가지 왜능화 오십오 당 가니 님춘 씨 드린 상으로 부마 주어라 <숙명-08, 1652-1659, 효종(아버지) → 숙명공주(딸)>

25)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창덕궁”이라고 풀이하였고, 『한국고전용어사전』에는 “창경궁을 달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였다. 조선 후기 순조 연간에 도화서 화원들이 그린 〈동궐도〉가 현재 2점이 전하는데, 이것은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각과 궁궐 전경을 조감 도식으로 그린 그림이다.

- 나. 고간의 히삼 홍압 좀 더 드려보니시고 장지 유지 모즈르오니 더 쥐시고 돈도
좀 슈히 쥐웁소셔 <명성궁녀-16, 1883-1895, 미상→민영소>
- 다. 벼로를 달라 하던 거시니 나 빼던 벼로를 필록하고 비워 오늘 귀환 날이오
경스 상으로 보내니 빼라 벼로가 도키 묵도 득르디 아니하고 극기 료타 <정순왕
후-1, 1759-1805, 정순왕후(숙모)→미상(조카)>
- 라. 아히 상은 가지고 놀게 윷판 보낸다 <정순왕후-1, 1759-1805, 정순왕후(숙모)
→미상(조카)>
- 마. 오늘은 복 잇는 날이기 벼로집이 남기로 닉보낸다 <정순왕후-1, 1759-1805,
정순왕후(숙모)→미상(조카)>

종이의 물명으로는 ‘장지’와 ‘유지’, 그리고 ‘왜능화’가 나타난다. ‘장지’는 두껍고 질기며 질이 좋은 종이이고, ‘유지’는 기름을 먹인 종이이다. ‘왜능화’는 왜능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종이를 말한다. 종이와 벼루, 먹 등 문구류는 사대부 언간에도 많이 나타난다.

(25)

- 가. 어제 냥 쇠촉 보내엿더니 본다 면조등 이 수대로 보내노라 <숙명-05, 1652-
1659, 효종(아버지)→숙명공주(딸)>
- 나. 작일 봉상의서 환션 두로던 거시 괴 눌고 <숙명-10, 1661, 현종(남동생)
→숙명공주(누나)>
- 다. 어제 실털 쓴 것도 조시 바닷노라 <숙명-44, 1663, 인선왕후(어머니)→숙명공
주(딸)>
- 라. 다리에 도든 거스로 약 부르고 산침 맛기로 너머 못 가느니 더욱 섭섭하고
흐읍느 <숙휘-05, 현종(아들)→인선왕후(어머니)>
- 마. 전 일박 냥 [...] 주촉 삼십 병 연득 일 기 향초 오 근 <정조어필첩-13, 1796,
정조(조카)→여홍민씨(외숙모)>
- 바. 전 일박 냥 [...] 진소 십 기 [...] 죠촉 삼십 병 연득 일 기 구간득 향초 오
근 <정조어필첩-12, 1795, 정조(조카)→여홍민씨(외숙모)>
- 사. 이 병풍은 오늘 보내마 흐여던 거시라 마초아 아조 린든 거시 이시매 보내니
티고 노라라 <명안어필-07, 1667-1674, 현종(아버지)→명안공주(딸)>
- 아. 가화는 보고져 드려시니 귀한여 압히 노코 보니 괴절하고 진짓 거시에서 다른미
업너 <순원왕후-1, 1802-1857, 순원왕후→미상>

(25)는 각종 생활용품들이 나타난 경우이다. 돈을 비롯하여 초나 등(燈), 빗이나 부채, 담뱃대, 침, 그리고 병풍이나 가화(假花)까지 매우 다양하다. ‘실털’은 종이로 만들어 실이나 헝겊 조각을 담는 손그릇이다.

(26)

- 가. 녹의인년은 고тер 보내려 흔니 깃거노라 <숙명-17, 1659년경, 인선왕후(어머니)→숙명공주(딸)〉
- 나. 하북니장군년 간다 감역 집의 벗진 죵 츠자 드리올 제 가져오나라 <숙명-18, 1659-1662, 인선왕후(어머니)→숙명공주(딸)〉
- 다. 슈호년으란 닉일 드러와서 네 출혀 보내여라 <숙명-65, 1652-1674, 인선왕후(어머니)→숙명공주(딸)〉

‘녹의인전, 하북이장군전, 수호전’은 중국 소설로 짐작되며, 17세기 왕실에서 중국 소설이 많이 유통되어 읽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 사대부 언간에는 아직 소설책의 이름이 나타난 것이 없어서 왕실 언간에 나타난 물명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IV. 왕실 언간의 단위명사

단위명사는 물명과 함께 쓰이면서 물명의 의미를 분류하고 한정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물명과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이룬다. 가령, ‘향초 오 근’ <정조어필첩-12, 1795, 정조(조카)→여홍민씨(외숙모)〉과 같이 ‘향초’라는 물명과 ‘근’이라는 단위명사가 함께 나타나는데, ‘향초’는 香燭, 香草, 香醋의 의미가 있다. ‘근’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명사이므로 함께 나타나는 물명은 무게를 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香燭은 개수 단위의 물명이고, 香醋은 부피 단위의 물명이므로 이 언간에 쓰인 ‘향초’는 香草, 즉 향기로운 담배라는 뜻의 물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명과 단위명사는 별개의 부류가 아니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어사 연구에서 단위명사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기서는 왕실 언간에 나타나는 단위명사를 사대부 언간이나 의궤, 발기 등 다른 문헌에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가면서 그 특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왕실 언간의 단위명사를 조사해보면, 고유어 단위명사가 나타나지 않고, 한자어 단위명사만 나타난다.

26) 각 소설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종덕(2011:13)을 참고할 수 있다. 또 현종의 딸인 명안공 주가에 전하는 자료 중에서 현종이 명안공주에게 보낸 물목 단자에 여러 종류의 중국 소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1.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명사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명사로는 옷감의 길이를 세는 페(疋), 통(桶)이 나타난다. 페은 옷감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명사인데, 쓰임에 따라 그 길이가 다르지만, 보통 1페은 35자(尺)에 해당된다.²⁷⁾ 통(桶)은 일정한 길이로 짠 옷감 10페(疋)의 길이를 나타낸다.²⁸⁾ 통보다 더 큰 단위로는 동(同)이 있는데, 50페의 길이에 해당한다.

(27)

- 가. 서양스 삼 페 셔양목 일 통만 드려보니 쥐시고 〈명성궁녀-14, 1883-1895, 미상→민영소〉
- 나. 무명 두 페 보내노라 혼 페란 소곰 받고 혼 페란 내 겹므로매 ippo 비단 입고 둔겁고 붉고 혼니 사 보내여라 〈순천김씨묘-014, 1550-1592, 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 다. 등목 열 페은 더 스려 혼더니 계서 고은 세복 페이나 서너 페 더 스고 〈의성김씨가-038, 1848, 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 라. 명디가 열여덟 자하니 몇 페의 혀여 비든고 조시 아녀시니 몰라볼다 〈송준길가-010, 1650-1683, 백천조씨(어머니)→미상(아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단위명사 앞에 쓰인 수사가 한자어 수사라는 점이다. (27나, 다)와 같이 비슷한 문맥의 사대부 언간에서는 주로 고유어 수사가 나타난다. 또 사대부 언간에는 자나 페이 나타나고, 통이나 동과 같이 큰 단위명사는 쓰이지 않는다.

2.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명사

(28)

- 가. 미 일 석 [...] 하란 삼 승 감동해 오 승 [...] 빅청 오 승 〈정조어필첩-08, 1790년경, 정조(조카)→여홍민씨(외숙모)〉
- 나. 미 일 석 [...] 하란 삼 승 빅청 오 승 〈정조어필첩-09, 1793, 정조(조카)→여홍민씨(외숙모)〉
- 다. 미 일 석 [...] 잡해 삼 승 감동해 삼 승 빅청 오 승 [...] 의이 삼 승 〈정조어필첩-12,

27) 朴成勳, 『單位語辭典』(民衆書林, 1998), 545쪽.

28) 大布一桶 一疋十二尺, 十疋作一桶 〈度支準折, 紬綿木布綿〉.

1795,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 라. 미 일 석 [...] 익이 삼 승 빅청 오 승 〈정조어필첩-13, 1796,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명사로는 ‘석(石)’과 ‘승(升)’이 쓰였다. ‘석’과 ‘승’은 곡식이나 가루, 액체 등의 부피를 쟀 때 쓴다. ‘석’은 고유어 단위명사인 ‘섬’과 같고, ‘승’은 고유어 단위명사 ‘되’와 같은 뜻이다. ‘홉 < 되 = 승(升) < 말 = 두(斗) < 섬 = 석(石)’의 순서로 열 배씩 커진다. 왕실 인간에서는 쌀, 율무와 같은 곡식과 새우알젓, 곤쟁이젓 등의 젓갈, 꿀 등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명사로 쓰였으며, 수사도 한자어 수사만 나타난다.

3.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명사

(29)

- 가. 인삼 일 냥 [...] 향초 삼 근 연득 이 기 〈정조어필첩-08, 1776-1791,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 나. 인삼 일 냥 [...] 거히 오 근 [...] 민강 삼 근 〈정조어필첩-09, 1793,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 다. 인삼 일 냥 [...] 쥬촉 삼십 병 연득 일 기 구간득 향초 오 근 〈정조어필첩-12,
1795,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 라. 인삼 일 냥 [...] 주촉 삼십 병 연득 일 기 향초 오 근 〈정조어필첩-13, 1796,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 마. 약삼 두 냥 보내옵느이다 〈정조어필첩-11, 1795,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
모)〉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명사로는 ‘냥(兩)’과 ‘근(斤)’이 쓰였다. ‘냥’은 귀금속이나 약재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명사인데, 약재일 경우 한 근의 16분의 1의 무게이다. ‘근’이라는 단위명사가 쓰인 것으로 보아 ‘향초’는 ‘香燭’의 의미가 아니라 香草, 즉 향기가 좋은 담배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香燭’이었다면, ‘쥬촉’처럼 ‘병(柄)’이라는 단위명사가 쓰였을 것이다.

4. 뮤음을 나타내는 단위명사

(30)

- 가. 츄복 십 첩 〈정조어필첩-09, 1793〉
- 나. 건시 이 첩 〈정조어필첩-12, 1795,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 다. 대건시 일 첩 오덕어 이 첩 〈정조어필첩-13, 1796,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 라. 화복은 흔 덟이 모즈라더니 이는 보태고 남기 흔여시니 탄일 다례에 빼옵고 흔여시니 이런 싱평되고 깃본 이리 업서 흔노라 〈숙명-35, 1652-1674, 인선왕후(어머니) → 숙명공주(딸)〉
- 마. 내 니질은 어제 납효산 두 덟을 먹으니 빅니 섯겨 나던 거순 업스되 도수 콧기는 감티 아녀 아격 두 번 든냇노라 〈숙희신한첩-23, 1653-1662, 인선왕후(어머니) → 숙희공주(딸)〉
- 바. 삼체 오 첩 보내오니 드러오시기 전의 잡습고 드러오실가 흔옵느이다 〈정조어필첩-10, 1795,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 사. 탕체는 칙작브터 뉴군즈탕 십 텁 진어흐 우오시게 의정흐와습느이다 〈봉서-02, 19세기 후반, 서기 이씨 → 미상〉

‘첩/덟’, ‘텁’은 전복, 오징어, 곶감, 약 등을 세는 단위명사로 쓰였다. 〈정조한문간찰〉에는 ‘乾柿 一貼(정조한문간찰-8, 1795년)’과 같이 적혀 있다. ‘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왕실 언간에는 ‘첩/덟’과 ‘텁’이다. 전복, 오징어, 곶감은 100개가 1첩인데, 〈度支準折〉에 ‘大切全ト 一貼(十介作一串, 十串作一貼)’을 따르면 전복 10개가 1꼬치이고 10꼬치가 1첩이다. 약은 봉지에 쌈 약의 뭉치를 셀 때 쓰며, 복(服)으로도 쓴다.²⁹⁾

(31)

- 가. 석어 삼 속 〈정조어필첩-13, 1796,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 나. 청어 일 급 〈정조어필첩-08, 1776-1791,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 다. 훗 사름 오는 뒤 조과 무시나 보내여라 〈선찰-9-091, 1700, 안동김씨(어머니) → 송상기(아들)〉
- 라. 염청어 열 드를 무른 청어 이십오 드를 균이 잘못 드렷다 흔옵느 〈선세언독-19, 1668-1697, 송병하(남편) → 안정나씨(아내)〉

29)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첩02’와 ‘첩05(貼)’, 2개의 표제항으로 별개의 단위로 다루고 있다. ‘첩02’은 “채소나 과일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접은 채소나 과일 백 개를 이른다”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전복이나 오징어 같은 어물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첩05(貼)’은 “약봉지에 쌈 약의 뭉치를 세는 단위”로 풀이하였다.

마. 훗 왕내예 청어 드름이나 보내오실가 흐옵 〈송준길가-34, 1735, 밀양박씨(아내)
→ 송요화(남편)〉

생선의 끈음을 나타내는 단위명사는 ‘속(束)’과 ‘급(級)’이 쓰였다. (31가)의 ‘속(束)’은 고유어 단위명사인 ‘못’에 해당하는데, 생선 10마리를 묶어 세는 단위이다. 사대부 인간에서는 (31다)와 같이 ‘못’으로 나타난다. (31나)의 ‘급(級)’은 고유어 단위명사인 ‘두름’에 해당하는데, 생선을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을 세는 단위이다. 사대부 인간에는 ‘드름, 드름’으로 나타난다.

5.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명사

(32)

- 가. 성강요쥬 십 乞 [...] 왜감주 십 乞 산굴 삼십 乞 연득 이 乞 〈정조어필첩-08, 1776-1791,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나. 경조연득 일 乞 간득 오 乞 〈정조어필첩-09, 1793,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다. 연득 일 乞 구간득 〈정조어필첩-12, 1795,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라. 연득 일 乞 〈정조어필첩-13, 1796,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마. 이 황감 칠 𠂊 극쇼 불관호오나 정으로 모도온 거시라 가오니 적다 마옵시고
웃고 자옵쇼셔 〈숙명-11, 1659-1674, 현종(남동생) → 숙명공주(누나)〉

개수를 셀 때 쓰는 단위명사 ‘乞(箇)’는 왕실 인간에서 과일이나 꼬막, 담뱃대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다. 성강요주는 조개의 일종으로 꼬막을 가리킨다. (32마)는 굴의 개수를 세기 위해 ‘极(枚)’를 사용하였는데, 한문 간찰에서는 과일뿐만 아니라 동물, 도구, 돈, 종이 등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셀 때 사용하는 단위명사이다.

(33)

- 가. 광어 이 미 청어 일 급 싱대구 일 미 [...] 싱치 삼 슈 〈정조어필첩-08, 1790년경,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나. 광어 이 미 츄복 십 접 싱대구어 일 미 청어 일 급 고치 일 슈 싱치 삼
슈 〈정조어필첩-09, 1793,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다. 싱치 삼 슈 건시 이 접 불염석어 이 슈 싱대구어 일 미 슈어 일 미 〈정조어필첩-12, 1795, 정조(조카) → 여홍민씨(외숙모)〉

라. 싱치 삼 슈 대건시 일 접 오덕어 이 접 민어 이 미 셙어 삼 속 반건대구어
이 미 싱대구어 이 미 슈어 일 미 <정조어필첩-13, 1796, 정조(조카)→여홍민씨
(외숙모)>

생선의 개수를 셀 때는 ‘미(尾)’를 사용하였다. 고유어 ‘마리’에 해당하는
‘미’는 ‘광어, 싱대구, 슈어, 민어, 반건대구어’ 등 대부분의 생선 개수를
표현할 때 사용했다. 다만 ‘불염석어(不鹽石魚)’는 ‘굴비’를 ‘염석어(鹽石
魚)’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소금에 절이지 않은 조기를 말하는데,
‘미’ 대신 ‘슈(首)’라는 단위명사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불염석어’가 단지
소금에 절이지 않고 건조시킨 굴비를 가리키는지,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조기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미’와 ‘슈’는 둘 다 고유어 단위명
사로는 ‘마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생선은 모두 ‘미’를 사용하고,
유독 ‘불염석어’만 ‘슈’를 사용하였다. 이를 단순히 ‘미’와 ‘슈’를 통용해서
썼다고 볼 수도 있지만³⁰⁾, ‘불염석어’가 다른 생선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달리 구분해서 ‘슈’라는 단위명사를 썼다고 볼 수도 있다.
왕실 연간에서 ‘슈’는 ‘싱치’나 ‘고치’ 같은 평을 세는 데 사용한다. 반면
사대부 연간에서는 (33가)와 (33나)에서와 같이 ‘대구’나 ‘싱치’ 둘 다
‘마리’를 쓰고 있다.

(34)

- 가. 통천서 온 것 명태 닷 동도 아니 왓고 대구 두 마리 싱합은 흐 다솟도 아니
왓다 <선세언적-02, 1670, 청송심씨(증조모)→박성한(증손자)>
나. 보내울 것 업ษา 끌 서 말 제쥬 혼 병 싱꽝어 두 마리 싱치 혼 마리 보내옵노이다
<진주하씨묘-084/곽씨-125, 17세기 전기, 현풍곽씨(딸)→진주하씨(어머
니)>
다. 싱치 두 마리 견복 두 고지만 영천으로 낫참 미쳐 보내여라 <이동표가-08,
1687-1689, 이동표→미상>

(35)

- 가. 모즈 오 넙 <정조어필첩-13, 1796, 정조(조카)→여홍민씨(외숙모)>
나. 帽子 二立 <정조한문간찰-25, 1798, 정조(외사촌형)→홍취영(외사촌동생)>
다. 돈피 두 넝 간다 ㅋ니와 그거시 쥐갓 ㅋ튼니 반물이나 드려야 기울가 시브다

30) 실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秀魚四百四十尾, 文魚二百首, 石首魚一千尾[『세종실록』
세종 11년(1446) 7월 癸亥]와 같이 ‘尾’와 ‘首’를 통용해서 쓰고 있다.

〈숙명-23, 1652-1674, 인선왕후(어머니) → 숙명공주(딸)〉

‘닙’은 머리에 쓰는 물건의 수를 셀 때 쓰는 단위명사이다. 정조어필첩에서는 모자를 세는 단위로 ‘닙’을 사용하였다. ‘영(令, 領)’은 털가죽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단위명사로, ‘장(張)’과 같은 의미이다. 가죽은 털이 있고 없음에 따라 그 단위를 달리하는데, 털이 있는 가죽은 영으로, 털이 없는 가죽은 장으로 각각 달리 쓰인다.³¹⁾

(36)

- 가. 이 웅답은 품이 미오 조카 혼 부를 보너니 어서 낫기 조인다 〈명성황후-027, 1881-1895, 명성황후(고모) → 민영소(조카)〉
- 나. 충경이논 안질 더흔 일 념녀 측냥업다 앗가 양간 오 부 보니여드니 보았느냐
성실이 좀 먹여 보고 양의나 좀 보이면 조케다 〈명성황후-049, 1881-1895,
명성황후(고모) → 민영소(조카)〉

고로인 명성황후가 조카 민영소에게 웅답과 양간을 보내면서 ‘부’라는 단위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는 ‘보’의 뜻을 가진 ‘부(部)’인 듯하다. ‘부(部)’는 간, 허파, 양, 안심, 콩팥 등의 수를 세거나 우황, 사향, 웅답 등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단위명사이다.³²⁾ 17세기 중엽에 쓰여진 〈진주 유씨가 묘 출토 언간(유시정 언간)〉에도 ‘은구어 쉰 어란 네 부 쇼쥬 오 션(55)’과 같이 어란(魚卵)을 세는 단위명사로 ‘부’가 나타난다.³³⁾

V. 맷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왕실 언간에 나타난 물명을 정리하고 분류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 물명과 함께 나타나는 단위명사의 의미도 살펴보았다. 물명은 의생활 관련 물명, 식생활 관련 물명, 주생활 관련 물명, 기타

31) 朴成勳, 앞의 책, 329-331쪽.

32) 위의 책, 231-232쪽.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보03’을 “웅답이나 저답 따위를 세는 단위”라고 풀이하면서 고유어 의존명사로 보았다.

33) 박재연(2008:257-258)에서는 ‘부’를 ‘별(副)’의 옛말로, 장기, 바둑, 쌍륙 등을 세는 단위라고 설명하였다.

물명으로 구분하고, 그 특성을 검토하였다. 단위명사는 길이, 부피, 무게, 뮤음, 개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를 점검하였다. 의생활 관련 물명에는 왕실 의례용 복식명들이 나타났고, 식생활 관련 물명에서는 약명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주생활 관련 물명에는 궁궐 건물명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기타 물명에는 문구나 소설책, 생활용품 등이 나타났다.

왕실 인간에 등장하는 단위명사에는 길이를 나타내는 ‘필(疋), 통(桶)’, 부피를 나타내는 ‘석(石), 승(升)’, 무게를 나타내는 ‘냥(兩), 근(斤)’, 뮤음을 나타내는 ‘겹/덥, 텁, 속, 급’, 개수를 나타내는 ‘기(箇), 미(枚), 미(尾), 슈(首), 닙(立), 영(令, 領), 부(部)’가 있다.

물명들을 의미 부류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에서 왕실 인간에 나타난 물명과 단위명사는 칠자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대부 인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고치, ㆁ티’ 등의 물명과 ‘통(桶), 영(令)’ 등의 단위명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몇 물명은 해석의 가능성만 제시하고 분명한 의미를 밝히지 못하거나 충분한 용례를 찾지 못한 경우가 있고, 원문 이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현전하는 모든 왕실 인간을 포괄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다. 그렇지만 이 연구가 왕실 인간에 숨어 있는 물명을 소개하고 대략적인 특성을 밝힘으로써 물명 연구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왕실 인간에 나타나는 물명들은 의궤나 발기 등의 왕실 문헌은 물론이고 각종 고문헌 및 고문서, 고전소설, 유서 등 물명이 나타나는 다양한 문헌을 대상으로 매우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이렇게 각종 관련 자료에 나타나는 물명을 종합하여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물명 아카이브와 같은 물명 DB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앞으로 이런 토대 시업이 이루어져서 이를 바탕으로 방대하고 폭넓은 자료를 이용하게 된다면, 물명의 실체를 제대로 밝힐 뿐 아니라 각각의 물명에 대한 어휘사를 기술할 수 있고, 문화사적인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릉시립박물관, 『寶物第1220號 明安公主關聯遺物圖錄』, 1996.
- 국립청주박물관,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 국립청주박물관, 2011.
- 국립한글박물관, 『김씨부인한글상언 · 정조어필한글편지첩 · 곤진어필』, 국립한글박물관, 2014.
- _____, 『2015 국립한글박물관 기획특별전 한글 편지, 시대를 읽다』, 국립한글박물관, 2015.
- 金奉佐, 「해남 녹우당 소장 은사첩 고찰」, 『書誌學研究』 제33집, 2006, 217-249쪽.
- 金一根, 『解說 · 校註 李朝御筆諺簡集』, NARA PUBLISHING CO., 1959.
- _____, 『親筆諺簡總攬』, 景仁文化社, 1974.
- _____, 『三訂版 諺簡의 研究』, 건국대학교출판부, 1986 · 1999.
- 박부자, 「숙명신한첩의 국어학적 특징」,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 국립청주박물관, 2011.
- _____, 「복식명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제37권 제4호, 2014, 7-41쪽.
- 박재연, 「진주 유씨가 묘 출토 인간의 어휘론적 고찰」, 『한글필사문헌과 사전 편찬』, 역락, 2012, 13-47쪽.
- 이기대, 「『明成聖后御筆』 연구」, 『한국민족문화』 4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 이종덕, 「17세기 왕실 인간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_____, 「숙명신한첩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 국립청주박물관, 2011.
- 임재완, 『정조대왕의 편지글』, 삼성미술관 Leeum, 2004.
- 조정아, 「의성김씨 학봉 종가 인간에 나타난 복식명 연구」, 『藏書閣』 제32집, 2014, 136-166쪽.
- 황문환 · 임치균 · 전경목 · 조정아 · 황은영,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1-3 권, 역락, 2013.

조선시대 필사본 음식조리서의 용어 색인 DB 구축

<http://ffr.krm.or.kr/base/td003/index.html>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식아카이브 <http://archive.hansik.org/>

국 문 요 약

이 글은 조선시대 왕실 언간 자료에 나타난 물명(物名)과 단위명사를 의미 부류에 따라 분류해 보고,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왕실 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발신자나 수신자 중 어느 한쪽이 왕이나 왕비, 공주, 상궁 등 왕실의 구성원인 언간을 말하며, 사대부 언간과 대별된다.

이 글에서는 발신자나 수신자 중 어느 한쪽이 왕실의 구성원인 왕실 언간이 일반 사대부 언간과 다른 특성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특성을 물명과 단위명사에서 찾아보았다. 따라서 먼저 현재 전하는 왕실 언간 자료의 성격과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총 429건의 왕실 언간을 대상으로 물명과 단위명사를 추출하여 의미 부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물명과 단위명사의 경향성을 통해 왕실 언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왕실 언간의 물명은 의생활 관련 물명, 식생활 관련 물명, 주생활 관련 물명, 기타 물명으로 구분하였다. 의생활 관련 물명에는 왕실 의례용 복식명들이 나타났고, 식생활 관련 물명에서는 약명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주생활 관련 물명에는 궁궐 건물명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기타 물명에는 문구나 소설책, 생활용품 등이 나타났다.

왕실 언간에 등장하는 단위명사에는 길이를 나타내는 ‘필(疋), 통(桶)’, 부피를 나타내는 ‘석(石), 승(升)’, 무게를 나타내는 ‘냥(兩), 근(斤)’, 묶음을 나타내는 ‘겹/덥, 텁, 속, 급’, 개수를 나타내는 ‘기(箇), 미(枚), 미(尾), 쥬(首), 닙(立), 영(令, 領), 부(部)’가 있다. 이들 단위명사는 모두 한자어 단위명사이며, 고유어 단위명사가 주를 이루는 사대부 언간과는 구별 된다.

왕실 언간에 나타나는 물명들은 의궤나 발기 등의 왕실 문헌과 복식명이나 음식명 등 물명이 나타나는 각종 고문헌 및 고문서, 고전소설, 유서 등에 나타나는 물명 등과 함께 매우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더불어 사대부 언간에 나타나는 물명 역시 다양한 자료를 통해 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각종 관련 자료에 나타나는 물명을 종합하여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물명 아카이브와 같은 물명 DB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앞으로 이런 토대 사업이 이루어져서 이를 바탕으로 방대하고 폭넓은 자료를 이용하여 물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15. 3. 20.

심사일 2015. 4. 27.

제재 확정일 2015. 5. 14.

주제어(keyword) 언간(vernacular letters), 왕실 언간(royal vernacular letters), 궁중 언간(court vernacular letters), 물명(names of things), 단위명사(measure nouns)

Abstracts

A Study on the Names of Things and the Measure Nouns of Royal Vernacular Letters

Jo, Jeong-a

This study aims to classify the names of things and the measure nouns of Korean old vernacular letters in Joseon Dynasty and to examine their features. Royal vernacular letters refer to letters of which sender or receiver is a member of royal family such as the king, the queen, the princess or the court lady. They are divisible with those of the literati. This study searches the characteristics of royal vernacular letters in the names of things and the measure nouns in contrast with literati's vernacular letters.

Firstly, we set bounds to the nature of the materials and the subject of the study, and next, classified the names of things and the measure nouns in the 429 royal vernacular letters according to their meanings. In this process we were able to understand the features of the royal vernacular letters through the tendency of the names of things and the measure nouns.

The names of things in the royal vernacular letters fell into four categories: clothing, food, shelter, and others. Names of ritual costumes were on the clothing category, names of medicine were major on the food category. Names of palaces appeared on the category of shelter. Names of stationary, novels and daily supplies were in other category.

In measure nouns appeared of the royal vernacular letters, there were 'Pil' and 'Tong' as units of length; 'Sheok' and 'Seung' as units of volume; 'Nyang' and 'Geun' as units of weight; 'Jyeop/dyeop, Tyeop, Sok, Geup' as units of bundles, '弓,' '匹,' 'Mi,' 'Shu,' 'Nip,' 'Young' and 'Bu' as units of numbers, These were all Chinese characters, and it was the distinction against the Literati's letters.

The name of a thing in royal vernacular letters is the field of study which requires a comprehensive research along with the name of a thing in costumes or food such as Uigwe and Balgi, and that of old literatures, novels, and wills. The name of a thing in the Literati's letters should be examined together. Building a database of the name of a thing is essential to systematize it. We expect further study on the name of a thing based on this kind of comprehensive work.